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엄 성현목사

설교 본문: 이사야 58 장 1 절-8 절

1 절-3 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1)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명백하게 전하는 경고의 멧세지인데, 멧세지 전달에 있어서도 추호의 실수나 오해가 결코 허락되지 않는 소리다.

(2) 큰 소리, 아끼지 말아야 할 소리는?

-타협하지 말고 회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농도 있고 강도 있게, 모든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하라는 말이다.

(3) 어떤 죄악인가? 누구의 죄악인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죄악이 있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죄악이다.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서 관심의 눈길을 주지 않으시며 전혀 알아 주지 않으시는 죄악이 있다.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죄악이다. 한 문화 자체로 굳어져 버려서 ‘아예 그러려니’ 하는 죄악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죄악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상태여서 그 반대로 정상이 비 정상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함께 지는 죄악으로 눈멀어 있는 죄악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죄악이다.

한두사람의 죄악이 아니기에 서로가 그런건 죄악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죄악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나간 확신속에 있기 때문에 선뜻 인정하고 깨닫기가 아주 어려운 죄악이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붙잡고 계시는 자들이 행하는 죄악이다.

(4)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인가?

-위선이라는 죄악-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벽을 치며 통회하고 곡하면서도 욕심과 탐욕, 이기적인 쾌락주의 또 한편 도모하는 위선적인 삶이다.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것들이 공존해 있는

이율배반의 상황이다. 혼란의 상황이다.

4 절-5 절 :

(1)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계획을 세웠으며 강도였던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다. 또한 40여명의 권력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섰다. 밤낮 식음을 전패하고 혈안이 되어 그를 죽이려는 모함을 했다. 모두가 금식하면서 저지른 위선적인 행위였다.

(2) 남들이야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우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내가 고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3) 내가 나의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는 가인의 무관심으로 우리는 고아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대한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일이 불편하니까, 나의 스케줄에 맞지 않으니까 미루려는 경향이 크다.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선뜻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것이 곧 내게 한것이라고 말씀하신다.

6-8 절:

(1) 욕심과 안일함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당장의 편리와 혜택에 의해 주장되려고 하는 죄인의 경향을 끊게 하는 것 자체가 금식이다. 또 이런 자제력을 위해 금식한다. 자신의 죄악을 극복하려고 씩씩한다.

(2) 금식하는 목적이 파괴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 하는 것임을 밝힌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려는 이기적인 심령을 회개하기 위해 금식한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것 보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안일함과 편리, 혜택을 택하려는 믿음 없는 마음에서 부터 돌이키기 위해 금식한다.

(3) 더 나아가 이사야서는 속박, 노예, 압제 당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영적 금식이라고 새롭게 정의한다. 이기심, 무관심이란 음식을 늘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그런 음식으로부터 금식하고 이제는 무아적인 사랑, 깊은 애정, 관심,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것 그것 자체가 참다운 금식이라고 규정한다.

(4) 7 절의 언급처럼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 행위 그 자체가 금식이라고 설명한다.

*참고 성경절-마태복음 25:31-46 절; 시편 41:1; 시편 82:3,4; 잠언 14:31; 잠언 19:17 절; 마 8:17 절

8 절-12 절

(1) 빛은 그리스도= 그분의 의=그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체험, ginosko, 요 17:3 절)하는 데서 오는 빛이다. 참고 성경절:말라기 4:2-이사야 61 장 1 절-

(2) 빛을 받지 않고 빛을 전할 수 없다. 우리 자신들은 빛 자체가 될 수 없다. 태양 빛을 반영하고 전달하는 달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전달될 때 우리는 빛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금잔 속에 담겨지는 사랑의 기름은 자유롭게 흘러 나아가서 선한 행실로 빛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해 참되고 마음에서 부터 충만하게 우리나라오는 봉사를 나눌 수 있게 된다.

(3)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동정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도움의 선물과 함께 밝은 표정, 희망찬 말들, 따뜻하고 친절함 악수의 손길을 나누라.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말과 함께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4) 이 사랑의 빛은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 몸동작, 억양, 말과 행동 속에 담겨 지게 된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사랑으로 옷입게 된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신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셨다.” COL 419.4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진정한 치유의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게 된다.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영향력의 범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할 수 밖에 없는 빛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COL 420.1

“희망과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COL 418.4

(5) 빛 되신 예수님의 모습, 사역: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몸과 마음, 영혼을 포함한 전인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주님께에서 부터 흘러 나왔다.” AH 167.4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계가 없었다. 어떤 장소나 시간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AH 167

“예수님의 생애는 지속적인 자기 희생의 삶이었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사셨다. 집도 없으셨다. 그분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의 집에 거하셨다. 핍절하고 고통하는 영혼들 틈에서 걷고 일하셨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삶을 사셨다. 주목을 끌거나 존경을 받는 일도 없었다. 사람들 속에서 거니시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 CSA 59.6

“예수님은 항상 인내하셨고 쾌활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설교하시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치유하시는데 보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고통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셨다.”

*참고 성경절:눅 14:13;딤펴 6:18 절;눅 12:33

(6)명상해야 할 말씀: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자원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된다. 영혼의 구원과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는데 사용되어지기 위해 맡겨 주신 자원들을 따른 곳으로 빼 돌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참고 성경절:이사야 2:20, 2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위해 삶을 빼앗기기엔 인생이 너무 고귀한 것이다. 막 8:36-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참고 성경절-마 25:34;눅 6:38; 12:33;딤펴 6:17-19

“복음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개인적인 사역들을 통해 가장 효과있게 소개되어진다.”